

로컬뉴스

김제시, 기준 공약사업 자체점검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등 5개분야 38개 사업 정상 추진위해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민선 6기 상반기 기준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위해 지난 27일 김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제시의 민선 6기 주요공약사업은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김제’, ‘돈과 사람이 불려드는 김제’, ‘농생명 허브도시 김제’,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 ‘다함께 잘사는 김제’ 등 5개분야 38개 사업이다.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받은 이후로 공약사업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 김제시 시장공약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민선6기 2년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1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내실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적등록 완료, 백구농공단지내 특장차자기인증지원센터 착공, 중자생명산업특구지정, 문화예술 종합센터 건립(16년 하반기 준공예정) 등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정상 추진중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물류단지 조성 등은 현재 실시설계와 운영과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정치권과 함께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임기내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민선6기 후반기가 본격 진행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업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 점검 및 정보공개로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경 해양오염예방 특별점검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이 격포항 등 주요 항 포구에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해경은 다음달 2일까지 최근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빈도 증가로 섬어기를 맞아 어선의 조업이 증가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출입 항 선박(어선, 낚시 어선)과 장기 계류선박의 선저폐수와 폐유, 발생 폐기물의 처리 상태 등이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선박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 폐유저장용기 스티커를 배부하여 해양오염방지 홍보 활동도 병행 한다.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해양오염을 줄여나가겠다”면서 “예방점검을 통해 해양오염 없는 청정 서남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추석 상수도 비상대책

정읍시가 ‘추석명절 연휴 상·하수도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사시 긴급대응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일환으로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취·정수장을 비롯한 소규모 수도시설 등에 대한 청소와 방호, 소독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송·배·급수관로(총 1,819km)의 누수 여부를 조기 점검, 발견 시 조속히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9. 14. ~ 9. 18.) 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대 일시적 물 부족 현상과 출수 불량 등 단수사고 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관리단에 비상용 급수차량과 병입물(0.4l) 3천병을 확보토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시 운반급수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연이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급수제한 지역 발생 등의 단수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급수공사 업체를 중심으로 긴급복구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복구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민원발생 사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명절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이 고향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교육학생 전원 검정고시 합격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도인기)는 29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 전원이 2016년 2차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고 밝혔다.

‘꿈드림’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및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23일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과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평선학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명인학원과 3자간 MOU를 체결하여 최고 강사들로부터 최적화된 검정고시 교육 시스템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는 수성동 정읍산림조합 부지 내 4,021㎡에 건축면적 2,307㎡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참여

정읍시가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모하는 ‘2017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하 산지유통센터)’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원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이다.

시는 수성동 정읍산림조합 부지 내

4천21㎡에 건축면적 2천307㎡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인들의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며 “이번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비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임산물 제공은 물론 임산물의 안정적인 출하 확보

정읍 산림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임업진흥원 현장 심사단은 29일 현지를 방문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함께 현장 실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장실사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리 확보 등 민원의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월세대출 받을 수 있어”

김제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대폭 확대·시행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대폭 확대·시행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 임대료를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월세대출제도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일부 대상만 받을 수 있었다.

확대 시행된 월세대출제도는 자녀장

려금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우대형)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일반형)에게는 연리 2.5%가 적용된다. 최장 10년까지 이용(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고 월세대출 취급 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대출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확인을 위한 대출 신청자

의 주거급여 수급자 정보조회는 9월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이전까지 대출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수탁은행에 월세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비수급자확인서 발급 협조를 요청 했고, 주거급여제도와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어르신들,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관절 건강 챙겨요”

김제시보건소, 제2기 관절염수중운동교실 개강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지난 26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제2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개강한다. 2주간 신청자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및 관절염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주3회 월, 수, 금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김제실내체육관 수영장에서 진행된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개강 전 8월 26일 입교식에서는 40명의 제2기 수

강생을 대상으로 운동 전 후 건강상태 비교를 위한 인바디 측정 및 혈압·혈당 등 기초검진이 이루어졌으며 수중운동의 목적과 일상생활에서의 관절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물의 부력을 이용하는 아쿠아로빅 수중운동을 통하여 인공관절 수술환자 및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로 일상생활 능력을 지지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

상을 목적으로 김제시보건소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인기 프로그램이다.

제2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8월 29일 1회 수업을 시작으로 아쿠아로빅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아쿠아로빅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안전하게 배우며 12월 5일까지 40회 일정으로 운영되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은 김제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540-1326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가오는 추석과 지평선축제에 대비하여 입석전승관 주변을 깨끗이하고 전승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바라기를 식재하였다.

입석전승관 주변에 해바라기 식재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부녀회원들 봉사활동 나서

김제시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부녀회원(부녀회장 모성임)들은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줄 가을의 정령사 해바라기를 입석전승관 주변에 식재했다.

봉사를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월사모 부녀회원’들은 다가오는 추석과 지평선축제에 대비하여 입석전승관 주변을 깨끗이하고 전승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바라기를 식재하였다.

이날 식재를 함께한 모성임 부녀회

장은 “여느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이었지만 화사한 가을꽃 때문인지 오늘은 초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많은 이들이 해바라기 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교월동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민들이 함께 설립한 교월사모는 그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 하계방역활동 및 연말연시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등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9월의 수산물 ‘전어·우럭’

부안군, 비타민A 많고 피로회복 뛰어나

부안군은 많은 양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환자와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촉진에 좋은 전어와 비타민A가 많아 시력저하를 방지하고 간기능 향상과 피로회복에 뛰어난 전어와 우럭을 9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했다.

전어는 우유보다 2배, 쇠고기보다 약 11배 많은 양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환자와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촉진에 도움이 되고 가을전어의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나라처럼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생선이다.

우럭은 아미노산 중에서 황을 함유하는 함황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빠른 간의 해독으로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세포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B2와 함께 칼슘, 철분, 비타민 등을 동시에 보충해 주며 뇌기능 향상과 스트레스로부터 진정 작용에 도움이 된다.

9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안 상설 시장, 품소수산물판매센터, 격포항 수산물센터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특산물 및 계절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매월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야시장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정읍 샘고을시장 하반기 야시장 시작

내달 2일,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와 흥겨운 문화공연 풍성

정읍의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야시장 하반기 프로그램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샘고을시장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일환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샘고을시장 야시장은 시장 내 다목적광장을 중심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

문화상품 등은 기본이고 국악과 가요, 댄스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시민노래자랑과 경품추첨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야시장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상인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 샘고을 시장을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전국적광장을 중심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

/정읍=김대환 기자